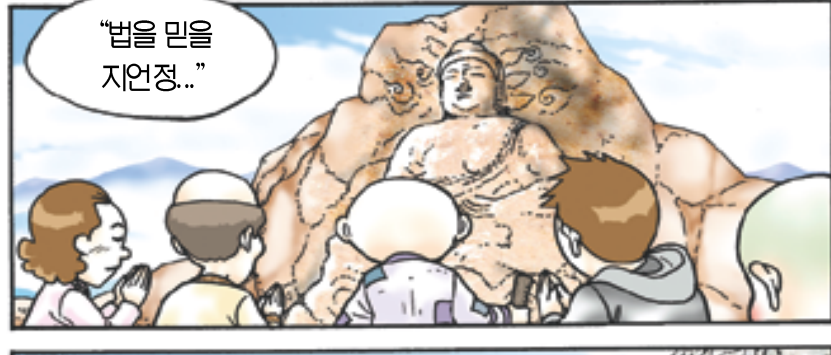


# 이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6화)

## “사람을 믿지 말고 법을 믿어라”

〈출전: 잡야함경 30: 837경: 2~214중〉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 이렇게 들었다

전쟁의 촉

## 승·패 버리면 고요한 즐거움 있어

선재는 뭔가 불안한 마음으로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는 설을 보냈다. 세계의 화약고라는 중동 지역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이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 달 28일 ‘당장이라도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동맹국들의 지원이나 유엔 결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예전 석유파동 때를 연상시키는 여러 가지 에너지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다.

왜 꼭 미국은 공화당이 집권하면 전 세계를 전쟁으로 떨게 하는지 선재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미국은 오스마 빈 라덴에게 겨누던 보복의 칼날을 이라크로, 북한으로 옮기며 전쟁의 기회를 엿보고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악의 축’이라는 듣기에도 심복한 별명이 붙여졌다.

미국이 결심하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이 상황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 공화당인 레이건 대통령 때인 1986년 캘리포니아의 폭발 사고 이후 다시 콜롬비

아호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직후 테러 가능성을 운운하는 성급한 보도를 보며 선재는 별 걸 다 전쟁과 연결시키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혹시 전쟁의 기운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사고가 뭔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선재가 들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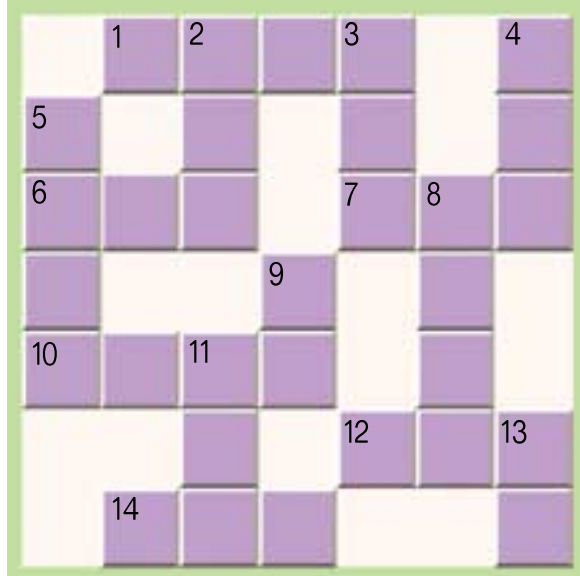
짜워 이기면 원수가 많아지고, 패하면 누워도 편치 않다. 이기고 지는 일 이 두 가지를 함께 버리면 자나 깨나 고요한 즐거움이 있다. 〈잡야함경〉

싸움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다. 이기면 다시 이겨야 하고 항복하면 다시 항복받아야 하며, 해치면 다시 해쳐야 한다. 〈중야함경〉

싸움터에 나가 천번 싸우고 천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도, 자기에게 이기는 자야말로 최상의 전사이다. 〈법구경〉

세해에는 진정한 세계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 최원섭 (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 교리퍼즐

가로

1. 지옥 중생을 구제한다는 대승 보살. 비구 형으로 원수에 가슴 보석, 오른손에는 석장(錫杖)을 쥔 모습으로 형상화 됨. 6. 부처님의 크고 원만한 지혜. 광대하고 완전한 깨달음. 7. 부처님에게 바치는 재물의 목록을 기록한 것. 혹은 부처님께 바치는 재물이라는 뜻. 10. 화엄경 보살주처품에 나오는 보살. 금강산에 있다고 함. 12. 중국 호북성 기주에 있는 산이름. 동산이라고도 함. 14. 번뇌의 지멸이라고 하는 결과, 즉 열반을 말하는 것으로 오과(五果)의 하나.

< 407호 「교리퍼즐」 정답 >



세로

2. 한국의 사원에서 대장경을 안치하고 있는 당사(堂舍). 3. 불살생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의 하나. 부모를 죽이는 것. 4. 화장을 일컫는 말. 5. 광대하고 요묘한 법, 곧 불법이 넓고 크고 지극함을 형용한 말. 8.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연화로 상징되는 최고 경지의 삼매에 든 것을 의미. 법화삼매와 동일한 뜻. 9. 스님들이 보름마다 모여서 지난 반달 동안의 행동을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 참회하는 행사. 11. 대승계, 불성계라고도 함. 대승의 보살이 받아 지키는 계. 13. 산군(山君), 산신령(山神靈)이라고도 함. 모든 산을 수호하는 신령들의 다른 이름.

mahamoll.co.kr

# 희담석

## “보살님, 처사님 생명의 돌, 희담석으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 “생명의 돌, 생체활성 메카니즘메카니즘 - 희담석이란?”

희담석(黑潭石 / Batu Hitam)은 동남아의 오지에서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되어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여,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여타의 제품보다 뛰어나다. 이런 희담석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피동결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끌어내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임을 입증하여 실용화한 것이 (주)자원넷의 희담석 제품입니다.



〈희담석 방석〉  
■ 권중소비자가격: 199,000원  
● 색상: 연카키색, 살구색

〈희담석 매트〉  
■ 권중소비자가격: 38,000원

〈희담석 다기세트〉  
■ 권중소비자가격: 80,000원

〈희담석 보포〉  
● 고급형 보포: 4,000,000원  
● 1인용 보포형 보포: 2,800,000원  
● 2인용 희담석 보포: A형 13,000,000원 B형 15,000,000원

### 〈희담석 체험사례〉

직업적인 이유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데 수개월 동안 항문 부분이 몹시 아팠다. 잘못하면 치질도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병원이나 약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냥 넘기고 있던 중 〈희담석 방석〉을 만나게 되었다. 그날 의자에 깔고 사용했는데, 어느 순간 몇 개월 동안 아팠던 항문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방석을 사용한 지 불과 보름이나 지나지 않았을까? 〈희담석 방석〉이 치료 효과가 있다더니 확인한 일이다. 수량이 한정된 제품이라니 나중에 대비해서 미리 하나 더 구매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이성원(43세/남, 직가)

나는 하루종일 컴퓨터와 씨름을 하는데 밤샘 작업 후나 이근 후에는 어깨와 팔이 수시로 빠시곤 했다. 그러던 중 마하몰에서 판매되는 〈희담석 방석〉을 보고 처음에는 무슨 방식이 그렇게 비싼가? 하는 생각과 함께 비싼만큼 무언가 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구입을 하여 직장에서 사용하는 방석으로, 집에서 팔 어깨 부위 등에 놓고 잠을 자기도 하고, 피곤할 때는 베개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이제는 항상 〈희담석 방석〉을 항상 지니고 생활하는 희담석 애호가 되어 버렸다. 최경근(33세/남, 컴퓨터 디자이너)

여고 1학년 내 딸은 평소 책상에 앉아 밤 12시 넘기를 넘겨줬으며 그나마 졸기 일수였다. 또한 아침에는 늘 깨우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지난 추석 우연히 〈희담석 방석〉을 일게 되어 딸 아이의 의자에 깔아 놓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중간고사를 준비한다며 딸 아이는 새벽 3시~4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도 졸기는 커녕 집중을 잘 하는 듯 보였고 더군다나 밤 늦도록 공부했음에도 아침에 힘들지 않고 잘 일어났다. 평소 자기 반 32명 중 27등 정도였던 딸아이의 성적은 〈희담석 방석〉을 사용한 후 10등으로 올라갔고, 암기 과목을 어려워 했었는데 암기 과목의 성적도 전체적으로 월등히 높아졌다. 나의 딸애는 물론 선생님과 친구들까지도 매우 놀리워했다. 김영희(41/여, 수험생 어머니, 부원 중등)

좌선을 하거나 혹은 경서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책상 앞에 있다보니 고질적인 치질로 하여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우연히 〈희담석 방석〉을 소개받아 사용했는데, 그 놀라운 효능을 곧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오랫동안 좌선을 해도 편안하고, 장시간 책을 보아도 맑은 정신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좋다. 경안 스님(산남, 덕후사)

마하몰 제품문의  
www.mahamoll.co.kr  
(02)732-1520

제조원  
(주)자원넷  
JAWONET CO., LTD.